

세종시 청춘조치원 사업을 통해 본 주민 주도 도시재생 방안

고재홍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장

들어가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시작

1931년 조치원읍은 인근 대전시와 함께 읍으로 승격하였다. 이후 대전시는 인구 150만 명의 광역시로 성장한 반면 조치원읍은 80여 년간 성장 없이 큰 바위처럼 그대로였다. 그렇다고 해서 조치원읍을 초라하게 바라본 적은 없다. 필자는 1981년부터 연기군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이곳에서 지역개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조치원읍이 탄생 후 반평생을 지역 발전에 힘쓰며 동고동락하여 왔다. 얼마 전까지 해도 조치원읍은 연기군의 공공시설에 43%, 사업체의 59%, 인구의 52%가 집중되어 있는 중심지였다. 필자에게 이 중심지에 근무하는 것이 마음 한편에 뿌듯함까지 주곤 하였다.

그러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고 조치원읍 인근에 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첨단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조치원읍은 갑자기 늙고 초라해짐이 느껴졌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모태로 건설 중이지만, 내부적으로 건설지역과 원도심(조치원읍)의 불균형 발전 모습은 국가정책에 큰 모순이 되어 이 문제 해결이 핵심 현안으로 대두었다. 당시 이춘희 세종시장은 문제 해결책으로 '원도심의 도시재생', '인프라 구축', '문화·복지 향상', '경제 발전' 등 4대 전략을 내세우고, 이를 통해 조치원에 인구 10만 명이 살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내용과 지향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주민이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세종형 도시재생 실천'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사업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장소 중심적 인프라 구축이다. 2015년에 처음 44개 주요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인프라 구축 14개, 문화·복지 24개, 지역경제 14개 등 모두 65개 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조치원이라

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사업범위 안에 다양한 부처 사업을 집중하고 연계하여 사업성과의 시너지를 발생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부처사업의 업무를 조정·총괄하기 위해 도시재생과(2015년 당시 청춘조치원과)를 신설하고, 부서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지역총괄계획가를 위촉하여 갈등을 관리하였다.

둘째, 주민 참여에서 주민 주도로 변화하는 거버넌스 지원사업이다. 앞에서 말한 청춘조치원의 슬로건에 ‘주민 스스로’라는 표현처럼 이 사업은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이끌어 나가는 사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치원발전위원회’라는 주민·전문가와 행정으로 구성된 협치 기구를 만들어 중점사업 추진에 방향을 정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을 지원한다.

셋째, 주민 주도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고 실제로 이를 사업화하여 참여의식과 주인의식을 높이며, 나아가 지역개발 사업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 주도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루다

지금까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프로젝트의 특징이자 자랑거리인 주민참여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 시에는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한 주민이 1,274명에 이른다. 도시재생대학교 과정은 8~10주 동안 다양한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사업 이해·의식전환 등의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더 전문적인 도시재생 분야 교육을 위해 코디네이터 과정(2년)을 개설하였고, 이 과정을 수료한 주민이 벌써 84명에 이른다. 이들 중 일부는 도시재생

대학교의 지도교수, 민간활동가, 중앙부처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협의체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시 주민은 주민참여 사업에 일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는 상향식으로 추진되는 각 분야의 도시재생사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주민참여 방식의 또 하나 자랑거리는 형식적이지 않고 현실적이며 지속적인 주민참여 회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 절차상 실시하는 일회성 주민설명회와는 차원이 다르다. 시는 2015년부터 화요일회의(2주마다), 나눔회의(월), 프로젝트 점검회의(분기별), 조치원발전위원회의(분기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 추진상황과 이슈 등을 공유하고, 주민 갈등이나 문제점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한다.

2주마다 열리는 화요일회의에는 주민 및 지역총괄계획가와 행정을 포함하여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곳에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사항을 나누고, 이 중 중요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좀 더 규모가 큰 나눔회의나 조치원발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을 결정한다. 이러한 구조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니 규모가 큰 기반시설사업이나 사업지 선정 등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대표적 기반시설사업 중 2017년 하반기에 추진한 중심가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있다. 사업 명칭처럼 조치원에 가장 중심도로이면서 가장 변화한 상업지역이고 대중교통(버스)이 운영되는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었는데, 이 중심가로를 25일 동안 전면 통제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상인이나 일반 주민의 반발 없이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제2기 청년서포터스 수료식(2019. 5. 27.)

맺음말: 젊은 조치원을 위한 물리적 개선과 인적자원 육성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현재 65개의 많은 거점 및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인적자원(사람)을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로 초기 계획하였던 31개의 사업이 순조롭게 완공되었다. 중심가로 주변에 민간자본이 투자되어 신규 건축물이 들어서고, 조치원 중심에서 30년 이상 운영되던 연탄공장 터가 도시숲으로 탈바꿈하고, 밝은 거리와 개선된 역광장 그리고 폐공장터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역량이 강화된 탄탄한 주민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해마다 선정되어 제법 큰 규모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조치원은 점점 더 젊어지고 있다.

도시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도시가 젊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여야 한다’고 한다. 특히 젊은 사

람들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면 더할 나이 없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점을 고려하여 지역 대학생들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시재생대학의 기수마다 지역 대학생들이 운영진으로 참여하고, 조치원발전위원회 청년분과도 설치되어 있다. 최근에 청년서포터스를 운영하며 지역 대학생들이 지역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이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필자의 바람은 주민과 젊은 세대들이 협치하여 지역개발에 힘쓰고, 그러는 가운데 다음 세대들의 주거·일자리·놀이거리 등이 자연스레 형성되어 조치원이 지속적으로 젊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